

멜번세순교회 청년부 수련회 2024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 세미나 I

2024년 3월 30일

그대들 어디에 서 있는가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는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의 주류로서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시대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가 대략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제가 대학 시절을 보내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이미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기독교가 정치, 사회, 문화를 주도한 바가 없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텐덤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한국 역시 오랜 전통의 빈 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크리스텐덤의 특성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 디지털화, 시뮬라시옹

제가 크리스텐덤과 유사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대한 추억입니다. 대규모 부흥 집회들이 열렸고 교회와 기도원이 많았으며 대학 캠퍼스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동아리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교회는 대형화와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이를 빌미로 일부 정치 세력화 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기독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서 공적으로 채택되어 기준을 제시하던 때를 경험한 바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수적이었고 마이너 그룹이었으며 주변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제 삶은 크리스텐덤 없이 곧바로 포스트크리스텐덤으로 진입한 듯한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 제가 경험한 것들 중 몇 가지 나눌 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25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기업의 세계화 현상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호주로 발령 받았을 때 회사는 북미-서유럽-일본을 각각 주요 시장으로 하고 그 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중국,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를 모두 묶어서 성장 시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기능적으로도 인사, 구매, 마케팅 등의 상당 수의 조직들을 글로벌 팀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업의 세계화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전 세계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 또한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별을 없애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에 집중하며 여성 및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기회 균등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포스트크리스텐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이 상호 인정되고 중요시되는 사회적 배경의 일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저는 천리안 하이텔 세대입니다. 모뎀을 사용해서 채팅방에 연결하고 텍스트로 된 문자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 또한 메인프레임에서 운영되는 텍스트 기반 이메일이었습니다. 넷스케이프를 통해 처음 웹에 접속했을 때의 기묘한 감정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후 통신 속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온라인 콘텐츠의 분량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TV보다도 유튜브가 더 인기 있는 영상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예술과 대중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경험한 디지털화의 가장 최근의 사례는 BTS와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입니다. 이들로 대표되는 K 콘텐츠들은 모두 포스트크리스텐덤적인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핵심 재료들은 재벌과 판타지입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매우 다른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내러티브들이 탁월한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세계와 공유됩니다. 이는 더 이상 기독교적 가치관이 문화와 예술에 영감을 제공하는 주요 출처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특성에 기여합니다.

세번째는 무기력감과 공허함, 가벼움의 병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마주했던 시간들입니다. 장 보들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읽고 한 달 정도 깊은 무기력감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시뮬라시옹에서 시뮬라크르는 현실을 모방하는 복제물이나 이미지를 의미하고, 시뮬라시옹은 이처럼 현실을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과정을 넘어서 모방이 현실을 대체하거나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경계가 흐려지면서 굳건해 보이던 가치들이 파편화합니다. 시뮬라시옹의 논점들은 시뮬레이션된 것들이 더 큰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이나 보편적 도덕과 같은 삶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더욱 다양한 미디어와 가상 현실과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세계는 시뮬라시옹의 세계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잘 꾸며진 하이퍼리얼리티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사는 우리에게 진실이나 진리나 도덕이나 삶의 목적은 그 기반을 잃게 되고 그 자리에 공허함과 무기력과 가벼움이 들어서게 됩니다.

경험들을 공유하고 보니 포스트크리스텐덤의 세계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한국은 포스트 콘퓨시아니즘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바로 전 시대인 조선 시대를 지배했던 정치 질서와 사회 윤리에는 유교적 원리와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여기에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외래 문명이 유입되며 해체를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교회가 기존의 권위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포스트크리스텐덤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 및 정치 세력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회 부조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교회가 기존의 사회를 지배했던 권위로서 도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현대화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소수로서 배척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포스트크리스텐덤의 특징은 사실상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와 전통이 무너지고 세계는 파편화 하였으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람들은 무기력감과 공허를 견디며 연결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는 논쟁이 아니라 내면의 상실과 상처의 치유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로 불러 모으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과거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호주에서 각각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당의 한 대형 교회 젊은 부목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 설교 중 동성애 관련 이슈를 언급하였다가 큰 저항에 부딪혔고 호주에서는 축망 받는 럭비 선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신앙적인 경고의 글을 올리면서 동성애를 죄의 목록에 포함하였다가 구단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어찌 보면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온 별개의 이슈들로서 하나의 같은 아레나에 서게 된 사건들입니다. 그 하나의 동일한 아레나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한국의 경우 동성애 집회에 대한 과격한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호주의 경우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취지에서 이 일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문으로 들어와 같은 마당에 섰고 몰아 치는 비난과 격려의 십자 포화 한 중앙에 각자 서게 된 것입니다.

논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그 신앙적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가, 둘째, 그 신앙적 해석을 전달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 그리고 셋째 여론에 대해 옹계 대응하였는가의 질문들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행동인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각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메타적인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슈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성을 보이는가, 이슈가 형성된 과정은 어떠한가, 이슈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등의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들어온 문이 정당한 문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서게 된 그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십자 포화를 맞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이고 전투하는 자리이며 분쟁하는 자리이고 주장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자리입니다. 크게 보아 한국의 사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모르고 진입한 듯하였고 호주의 사례는 그러한 자리인 줄 알고 들어선 듯 하였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인지 한국의 사례는 그 이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사과와 해명을 거듭하였고 호주의 사례는 종교적 양심과 자유의 문제로 이슈의 전환을 시도하여 여론에 있어서 팽팽히 맞섰고, 이후 법원 판결에서는 구단 측과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3.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4.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 125:1-5)

시편 125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순례자의 시선을 따라 전개되지 않고 대신 순례자를 포함한 전체 구도에 대한 묘사로 진행됩니다. 이 시는 순례자나 순례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메타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적 화자의 시야에 들어와 있는 재료는 단 두 가지, 첫째, 시온 산이

있음(1절)과 둘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2절)입니다. 이 두 가지 심상이 곧 이 시의 시적 상상력을 규정하는 시의 아래나입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 그 사람은 이러한 시적 공간이 제공하는 시적 진실에 순식간에 포섭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시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화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니 시온 산도 분명 변하였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시온 산과 오늘날의 시온 산이 같은 산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과 분명히 다른 진술이 진실성을 갖추려면 보다 포괄적인 다른 진리를 상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온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 28:16)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벧전 2:6, 롬 9:33)

둘째, 화자는 예루살렘을 "의인들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3절) 그러나 이 때의 예루살렘도 반드시 의인들만 사는 곳은 아니므로 의인들의 땅이라는 표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보다 포괄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팔을 돌려 감싸고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자기 팔을 돌려 감싸고 계신 그 곳에 선 그 사람들이 곧 "의인"이고 "선한 자들"이고 "정직한 자들"이며 "이스라엘"입니다. (3-5절)

이제 이 시의 시적 공간이 상징하는 바가 드러났습니다. 이 공간은 예수를 기춧돌로 하여 하나님 의롭게 하신 그 자리, 곧 영적 예루살렘이며, 그 곳은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십자 포화를 맞는 곳입니다. (4-5절) 3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3절) 화자는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품으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 곳에서는 악인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간청이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곳에서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 어디에 서 있는가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주제를 붙들고 시편 125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를 통하여 화자는 순례자들에게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를 제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우리에게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자리가 시온 산이요 예루살렘이고 그 곳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요 선한 자요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우시는 그 모든 곳이 은혜와 평강의 십자 포화를 맞는 영적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그 곳에 서 있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고 그 곳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선한 자이며 정직한 자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스트크리스텐덤의 시대에 "옳은 행동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